

박삼구 회장, 인수가 6503억 제시 금호산업 매각협상 탄력 받나

주당 3만7564원... 호반건설 제시액보다 22%~43% 높아
지역사회 “채권단 과욕 땀 지역경제 타격... 합리적 결정 기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의 최종 인수가로 주당 3만7564원인 6503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호산업 채권단은 이보다 3715억원이 더 많은 1조 218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기업의 공정가치를 무시한 채권단의 과욕으로 금호산업 매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21일 산업은행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은 금호산업 인수가로 주당 3만7564원씩 총 6503억원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채권단 측의 실사가 적, 최근 3개월간 금호산업 주가, 항공사를 보유한 동종기업 지주사인 한진칼의 3개월 평균 주가를 기초로 한 것이다. 기준가로 주당 2만5906원을 산정한 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45%를 더했다.

이에 앞서 금호산업 채권단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받아낼 매각가로 주당 5만9000원

씩 총 1조21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평가된 가격(주당 3만1000원)에 9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것으로, 21일 거래소 시장 증가인 1만6300원의 3.6배 수준이다.

박 회장 측은 “이 금액은 호반건설이 제시했던 금액(주당 3만907원)보다 22%가 높고 부대조건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3%가 높은 것”이라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수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매각가와 관련 금융계에서는 “최근 5년간 일반 기업의 M&A에서 적용된 경영권 프리미엄 45~55%는 실사가 아닌 주식 시가를 적용한 금액”이라며 “이번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가는 회계법인이 산정한 실사가 적용한 것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박 회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금호산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이 지난 2010년 대주주 100%감자를 단행했고, 2012년 6월에는 22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대주주로서 경영정상화에 각고의 노력을 쏟아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금액 차이가 큰 만큼 매각 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 측이 제시한 가격을 두고, 채권단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추가 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25일까지 각 채권기관이 원하는 가격을 취합한 뒤 28일까지는 최종 매각 가격을 채권단 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채권단이 최종 매각가를 결정해 박 회장에게 통보하면, 박 회장은 한 달 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통보 후 2주 내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박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이후 6개월간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 매각을 추진한다. 여기서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손잡은 南北 지난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2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연합뉴스

남북, 이틀 밤 마라톤 협상

김관진·홍용표 對 황병서·김양건 ‘2+2 고위급 접촉’... 합의 도출 ‘진통’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시작된 긴장 해소를 위해 남북이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11시간 만에 고위급접촉을 재개함에 따라 위기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남북은 일단 강한 협상의지를 확인했지만 해법 도출을 위한 각론에서는 팽팽히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의 상이한 견해차에도 남북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장관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는 고위급접촉을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재개했다.

접촉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전체 잠수함 전력(77척) 중 70%인 50여 척을 동·서해 잠수함 기지에서 이탈시켜 위기가 식별되지 않은 수중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최

전방에 전개한 포병전력 중 고위급접촉 이전보다 2배 이상을 사격 대기 상태로 전환해 긴장이 고조됐다.

최전방에 전개된 북한군 포병전력 중 사격준비 태세로 전환한 전력은 고위급 접촉 이전보다 2배 이상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군은 지난 20일 포격도발 때 사용한 76.2mm 평곡사포(직사화기)를 전진 배치하고 포병부대도 강도에서 나와 사격준비를 마친 상태다. 군과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런 동향이 남북 고위급당국자 접촉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 또는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도발을 위한 사전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즉각 타격할 태세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중적인

행동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에서 ‘2’로 격상하고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했다.

북한 포병전력이 대거 사격준비 태세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군도 최전방 지역에 130~131mm ‘구룡’ 다연장로켓 등 화력장비를 긴급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23~36km의 구룡은 36발의 로켓탄을 장착해 단발, 연발 사격할 수 있는 포병전력이다.

군은 또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동·서해상을縱계하는 우리 함정을 타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잠헬기 링스를 탑재한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P-3C를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혈세먹는 하마’ 2순환도로 소송 광주시, 유리한 고지 선점했다

서울행정법원, 맥쿼리청구 각하

광주시가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도로’ 운영사와의 ‘채정지원금(보조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관련기사 2면〉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행정법원 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광주 순환도로투자(주)(맥쿼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광주로 뛰우는 그림편지
한희원·히말리아 ▶18면

강정호 멀티홀런
신인왕에 한걸음 ▶20면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 일 10.2(금) 문의 (062) 605-1114

전남대학교에 미래가 있습니다!

- 세계대학평가 국내 10위, 세계 384위 <2015, 세계대학랭킹센터>
- 아시아대학평가 논문당 인용수 국립대 2위, 전국 9위 <2015, QS-조선일보>
- 국책연구과제 수주액 2,600억 원 돌파 <2013-2015.8>
- 2015 변호사시험 110명 합격 <최상위>
- 2015 중등교원 임용시험 202명 합격 <교육부, 역대 최다>
- 취업률 거점 국립대 3위 <2014, 대학정보공시 일리마>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수 지방대 1위, 전국 9위 <2014, 국립자료>



2016학년도 전남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5년 9월 10일(목) ~ 9월 15일(화) / 입학안내 1-click 서비스: http://ao.jnu.ac.kr / 문의전화: 062-530-1042(전남대학교 입학과)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